

(국내 강소 수출기업 모임)

베트남에 집결한 '한빛회' 中企人 "인구 1억 젊은 내수 시장 공략해야"

베트남 청년기업협회와 MOU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토지 임대료를 면제해드립니다." 지난 8일 베트남 중부의 다낭시 하이테크파크&산업단지 관리청 청사. 이곳의 실무를 총괄하는 판쯔영손 부국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 '엘리트' 기업들을 설득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달의 무역상'을 받은 기업들의 모임인 한빛회 회원사 대표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다낭이 수출기지가 되려면 물류, 인제, 내수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수준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한빛회가 베트남 중부에 투자 조사단을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산업단지 방문에 이어 9일엔 판남성 출라이 경제구역에서 열린 한-베 투자기술협력 포럼에 참가, 베트남 청년기업협회와 향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다낭은 판남성의 성도다. 한빛회를 이끌고 있는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 앙회 회장은 "만여 개 회원을 보유한 베트남 최정예기업과 제휴해 1억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빛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을 빛낸 무역인상' 수상자 모임이다. 상 이름의 머리글자를 따 모임 이름을 정했다. 2008년 6월 결성돼 10일 현재 회원 수는 204명이다. 지난해 회원사들이 직접 수출한 금액만 50억



강승구 한빛회 회장

달라에 달한다.

각 분야를 선도하는 강소기업들끼리 뭉친 데다 회원사들끼리 겹치는 분야도 거의 없어 '이종 결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한빛회만의 특징이다. 통신기 및 자동차용 인공 수정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 업체인 기림전자의 배수전 대표는 "한빛회 회원인 김 가 공업체가 공정 효율로 고민하길래 김 생산을 위한 전자회화장비를 국내 최초로 제작해 준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베트남 조사 기간에도 회원들은 수시로 사업 노하우를 공유했다. 호찌민에서 LCD(액정표시장치) 디스플레이 이용 부품을 제조하는 이명재 명정보기술 대표는 "한국에선 베트남 하노이 하노이나 호찌민만 생각하는데 이런 대도시들은 교통지역에 몰기도 한국과 비슷하다"며 "수출 전진기지를 원한다면 베트남 중부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회장은 "갑 보디어만 해도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현지 대리인이 재산을 몽땅 가로채 가는 일이 다반사"라며 "베트남의 대안으로 다른 나라를 택하기보다는 다낭과 같은 베트남 내 새로운 도시들을 검토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다낭=박동휘 특파원 donghui@hankyung.com



매니지온 이동식 충전기 '이볼트'

"주차장 일반 콘센트에서도 전기차 충전 끝"

고정형 아닌 이동식 충전기
이용자별 전기로 분리 과금
7시간 충전하면 140km 주행
"충전기 설치 의무화 - 수요 늘 것"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등 주거단지에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게 문제다. 매니지온이 올 초 선보인 '이볼트(Evoit)'는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다. 아파트나 회사 주차장에서 일반 콘센트에 꽂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내년 매니지온 대표는 "공동주택에서 고정형(독립스탠드형) 전기차 고속충전기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볼트는 충전에 사용된 전력도 자동으로 분리 과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용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동형 충전기로 전기차시장 진출
2013년 설립된 매니지온은 전력수요관리(DR) 업체로 출발했다. 전력수요관리는 기업체 등이 성수기 때 아전 전기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정산받는 사업이다.

매니지온은 전국 300여 개 제조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157MW 전력자원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41억여원의 매니지온 매출 대부분은 전력수요관리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2017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전기차 분야에 뛰어 들었다. 전



이내년 매니지온 대표가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차의 성장성이 큰 데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기차 고객의 불만이 많다는 점에 착안했다. 2년간 20여억원의 연구개발 투자 끝에 올 초 이볼트 개발에 성공했다.

이볼트는 LCD(액정표시장치)가 달려 있는 손잡이(커피네), 전력량계 및 통전에 불루선(LTE) 통신 모듈이 내장된 본체와 전원플러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소비자 가격(56만9000원)은 높지만 환경부가 보조금(40만원)을 준다. 이볼트는 아파트 내 충전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장에서도 220V 콘센트만 있으면 충전할 수 있다. 다만 충전위치정보시스템(로라장치)과 전자태그가 부착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대표는 "환경부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 고객이 거주하는 단지에 충전위치 정보시스템과 전자태그를 부착해 일상 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입주민 피해 없이 충전"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는 입주민이 함께 사용한다. 이볼트에는 LTE 모듈과 계량기가 장착돼 있어 전기를 사용하면 한국전력에서 요금을 분리하는 서버와 자동 연결된다. 개인 사용자가 이볼트를 쓰면 매니지온에서 한전에 한 달간 전력 비용을 지불하고 개별 고객에게 돈을 청구한다. 아파트 입주민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 이 대표는 "아파트 단지 내 충전

구역에서 40분을 정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입주민에게 피해를 안 주고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볼트는 기본적으로 전류 13A(암페어)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개별 단지마다 전력 사정이 달라 수요자가 전류를 6-13A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플러그에 열이 나면 전류를 낮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볼트는 1시간에 전력 3kW를 충전할 수 있다. 전기차는 흔히 1kW면 6-8km를 간다. 이 대표는 "이용자가 밤에 접자는 7-8시간 가량 충전하면 약 140km(20kWh)를 사용할 수 있다"며 "전기차 이용자들은 장시간 편안하게 충전할 수 있는 '집밥'집 주차장과 '회사밥'(회사 주차장)을 '외식'(주유소 급속 충전)보다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에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전용 콘센트를 4% 이상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동형 충전기 인프라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전기차뿐 아니라 전기스쿠터 전동킥보드 초소형전기차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thebest@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www.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크린랩이 아니라 비닐랩이었어?"

제품 진짜 이름 대신하는 장수 브랜드들

뉴스카페

유사상품 등장에 소송도

어떤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면 그 이름이 전체 상품을 대표하는 보통명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업계 최초로 출시돼 장수 브랜드가 됐거나 혁신적이어서 시장 판도를 바꿔놓은 경우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 '짜투기' 등장해 상표권 소송을 벌이기도 한다.

중장년 주부들은 식재료를 보관하기 위해 쓰는 비닐랩을 크린랩(사진)이라고 부른다. 크린랩이 제품명이자 브랜드명, 기업명이라는 걸 잘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크린랩은 국내 식품포장 비닐랩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유지하고 있다. 1983년 설립 이후 세계 최초로 인체에 무해한 폴리에틸렌 소재 랩을 내놨고, 당시 유



해성 논란이 있던 열화비닐 재질 제품을 판매하던 대기업을 제치고 단숨에 1위로 올라섰다. 승문수 대표는 "로고나 비스한 미투 브랜드가 등장하고 포털에서 크린랩을 검색하면 다른 제품이 나오는 등 부작용이 잦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처가 났을 때 사람들은 대일밴드를 찾는다. 대일밴드는 대일화학공업에서 만든 일회용 밴드의 제품명이다. 1955년 국내 최초로 일회용밴드를 수입해 대일 밴드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일회용

밴드=대일밴드' 공식이 생겼다. 대일제약에서 일회용 밴드에 비슷한 표장을 사용해 판매하자 대일화학공업은 대일제약과 상표분쟁 소송을 벌였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밴드류에 '대일' 표장을 사용하거나 제조 판매할 수 없다며 대일화학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에프킬라는 살충제 브랜드지만 스프레이 형식의 가정용 살충제로 통하기도 한다. 딱풀은 원통 모양의 고체 풀을 뜻한다. 문구회사 아모스에서 1984년 국내 최초로 만든 고체 풀의 이름이다. 이 밖에 붓고차라고 불리는 승합차의 시초는 1980년대 기아자동차에서 출시한 최초의 승합차 '붕고 코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붓고차는 '열 명 안팎이 타는 작은 승합차'를 이르는 말로 사전에도 등재됐다.

김정은 기자 ikesmile@hankyung.com

2019 중소기업인 기살리기 마라톤대회



김용구 중소기업진흥회(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마라톤니 이봉주 씨, 박원순 서울시장, 이봉구 한국경제TV 사장이 10일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기살리기 마라톤대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07@hankyung.com

중소기업 사기 직장을 위한 '2019 중소기업인 기살리기 마라톤대회'가 10일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중소기업진흥회가 주관하고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1080명이 사전 신청했다. 주관방송은 한국경제TV가 맡았다.

참가자들은 이날 하프마라톤, 10km, 5km, 2km 걷기 등 네 가지 종목으로 나눠서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중소기업진흥회 앞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동대문을 지나 용비교에서 반환점을 돌아 서울광장으로 복귀하는 코스를 달렸다. 김용구 중소기업진흥회장은 환영사

에서 "중소기업인 기살리기 마라톤대회를 통해 국가 경제에서 중소기업인의 중요성을 알리고 1000만 중소기업인의 기를 살려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중소기업인들이 주도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2019년 11월 18일(월) 개강

제2기 P2P금융 창업 & 전문가 과정 교육생 모집

국내 최초 P2P금융 전문 교육 커리큘럼

각 분야 P2P금융 최고의 실무 강사만 모셨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실전 전문가'의 완벽한 P2P 통합교육 솔루션 법인 설립부터 행정, 법무, 세무, 운영, 관리, 전산 등 모든 부분을 실 사례를 통해 전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경제지 한국경제신문이 운영하는 전문 교육기관 **한경이카데미** X 국내 유일 P2P금융 전문 교육단체 **P2P CAMPUS**

실전_부동산
이해우 강사님
부동산리얼티 대표

실전_노하우
이종석 강사님
해 WITH FUND 대표

P2P개념
김선용 강사님
해 TOPIA FUND 대표

P2P전산
차주현 강사님
해 Must Fintech CEO

실전_PF
박대성 강사님
해 HJ Investment 부장
해 PEOPLE FUND 사업2팀장

실전_통산
김수환 강사님
해 시스온브랜 대표

실전_대중
곽기용 강사님
해 나인피에스 대표

실전_P2P 보정
채정우 강사님
해 P2P사상관리 대표

마케팅
김범철 강사님
해 DocDong 대표

세무, 회계
이상화 강사님
해 공인회계사, 신용회계위원

법률
김경윤 강사님
해 법무법인 코미어 변호사



강의 시간 19:00-22:00(3시간)

- 1강 11월 18일(월) P2P금융이란?
- 2강 11월 20일(수) P2P실전 창업
- 3강 11월 25일(월) P2P 전산 구축
- 4강 11월 27일(수) 실전(부동산)

- 5강 12월 02일(월) 실전(PF상품)
- 6강 12월 04일(수) 실전(통산)
- 7강 12월 09일(월) 실전(대중, P2P CARE)
- 8강 12월 11일(수) 마케팅

- 9강 12월 16일(월) 법무
- 10강 12월 18일(수) 회계(세무)
- 11강 12월 20일(금) 특별 게스트

교육문의

교육신청 <http://ac.hankyung.com>
교육문의 02-360-4886
교육장소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3층 드림강의관

무상 제공 서비스

- 1. 한경빌딩 주차지원
- 2. 수료증 발급(수료기준 헌합)
- 3. 간식 및 식석